

**제3-1분과**

**프로젝트 스터디와 실습교육  
-사회복지실습의 프로그램화를 중심으로-**

김 덕 환(한일신학대학교 교수)

이 병 진(한일신학대학교 교수)

김 인(한일신대 조교, 숭실대 박사과정)

**1. 문제제기**

“실습이 너무 이론적이다.”

“실습실이 따로 있어 옆방에서 어떻게 전화를 받고 어떻게 업무를 하는지 그 부분이 아쉽다.”

“실습지를 정하는데 부터 고생이 많았다. 본인은 원광정신병원을 가고 싶었다. 자신이 가고 싶은 분야를 선정했으면 한다.”

“사전 오리엔테이션이 부족한 것을 느낀다.”

이상은 실습현장을 방문한 본 연구자들에게 학생들이 지적한 문제점의 일부이다. 핵심적인 지적은 실습이 피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습생이 단순히 실습생만이 아닌 연구자로서 현장에 접근하여야 되리라 생각된다.

적어도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학계에서는 사회복지 실습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회복지는 응용 학문이자 하나의 전문 교육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지식에 더하여 실천적인 적용 능력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한 실천적인 능력은 대학에서의 이론적인 수업만으로서 배양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실습을 통해 습득되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사회복지교육에 있어서 실습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이에 비해 열악한 실습 교육 내지 지도의 문제가 사회복지 교육계에서 자주 논의의 주제로서 등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대학에서 적절히 교육시켜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회복지교육계에 제기하고 있다.

사회가 요구하는 실천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 사회복지사를 배출토록 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사회복지 실습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사회복지 교육계 뿐 아니라 대학과 사회복지 기관간에 수 차례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현실적인 대학의 교육 여건과 사회복지

기관의 여건상의 어려움만을 확인한 채 뚜렷한 개선책을 마련치 못하고 문제성 있는 실습을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복지 실습 교육의 난맥상은 최근 전개되고 있는 대학 교육 개혁의 논의가 이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 실습 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의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사회복지 실습의 문제점으로는 실습이 대체로 형식적으로 실시되며 비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그 원인으로는 실습에 임하는 학생들의 주체성의 결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에는 먼저 학교나 실습 기관 그리고 학생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물론 학생의 실습 교육에 대한 동기는 개인이나 학교 그리고 기관 외적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취업의 기회와 그 기회에 대한 개인의 열망의 정도가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기서는 사회복지 실습 외적 환경이 실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실습과 관련이 있는 요인들만을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요인으로는 실습생의 목적의식(동기), 적절한 실습 기관과 지도(기회), 그리고 이를 통해 나타난 결과인 실습 교육의 목표 달성(능력)이라는 개념 틀과 연관하여 이해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 틀에 의하면 실습 교육의 목표를 적절히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생의 실습 동기와 이에 맞는 실습 기관과 실습 지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 실습 교육의 실패는 이 두 요인 모두가 중시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습 교육을 실시하여 왔다는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학생의 실습에 대한 욕구와 목적의식이 뚜렷하다해도 이를 수용할 만한 실습 기관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그럴 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 그 실습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아무리 훌륭한 실습 기관과 슈퍼바이저 그리고 지도 교수가 있다 할지라도 실습 받는 학생이 동기가 약할 경우 실습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실습의 효과는 실습생의 실습에 대한 목적의식과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실습 환경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실습생의 실습에 대한 동기 유발과 목적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일 것이다. 또한 실습 교육과 지도의 방향은 이의 실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실습을 통해 실습생이 정한 목적에 맞게 실습 기관이 선정되고, 이에 적절한 실습 내용과 실습 지도 방식이 뒤따를 때 보다 효과적인 실습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실습생의 욕구와 동기 그리고 관심이 비교적 잘 반영된 것이 실습을 통해 알고자 하는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과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실습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실습을 통해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실습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등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거치므로써 실습생들은 실습에 보다 문제 중심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실습에 임하게 될 것이다.

실습은 학생과 기관의 슈퍼바이저 그리고 실습 지도 교수 등 삼자의 협력이 전제되어

야 하나 주체가 되는 것은 학생이라고 본다. 여기서 요청되는 것은 학생이 주역인 이론과 실천을 통합하는 연구자로서의 실습 현장에의 접근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 II. 연구 방법

-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습이 “연구 중심 실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조건이 필요한가?

- 사회복지 현장에서 “연구 중심 실습”의 가능성과 한계는 어떤 것인가?

- 어떻게 학생이 실습 현장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비판적인 접근을 가능케 할 것인가?

본 연구자들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습 지도 교수와 조교로서 주관하고 현장 경험을 통한 실습 지도를 하였다. 보다 나은 실습 교육을 위하여 실습 교육의 프로그램화가 필요한데 그 중의 하나가 연구 과제 중심의 학습 즉, 프로젝트 스터디(project study)의 도입이라고 생각한다. 프로젝트 스터디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관심 분야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선택의 계기를 허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학부제 토론 과정에서 우려되고 있는 실천적인 전문성의 결여를 보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젝트화된 실습 교육의 전제조건으로는 공동 지도, 충분한 정보 제공, 학생의 연구 주제에 맞는 적절한 실습지 배정, 획일적이고 단기간이 아닌 융통성 있고 실습 기간의 조정, 그리고 실천 위주의 실습 교육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본 연구에서는 실습의 한 방안인 프로젝트 중심적 실습 방안을 본교의 실습 지도 경험을 기초로 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자료로는 한일신학대학교에서의 학생들의 학기 중의 실습 발표 및 토론의 내용, 실습평가회 자료집 또한 설문지를 이용하고 여기에 나타난 실습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을 프로젝트 스터디적인 시각에서 조명하려 한다.

## III. 사회복지 교육에 있어서 이론과 실제의 관계성

알리스 살로몬(Alice Salomon)은 사회사업은 의사들의 기술과 비교되는데 방법론적인 지식, 과학적인 설명 그리고 법률적인 규정이 전문적인 기초의 배경을 이루며 이로 인해 사회사업이 비전문적인 것과 구별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실천력(Tatkraft), 영감(Intuition) 그리고 삶의 경험(Lebenserfahrung)이 전문적인 지식을 직업적인 활동으로 통합시키는 전제 조건으로 보았다.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가 초점이 아니라 학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1)

사회복지는 응용과학의 하나이므로 이론과 실체가 분리되어 접근되기보다는 통합의 장으로 함께 이해되고 비판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계기는 현장과 연결된 학습에서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 실천은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단지 이를 통하여 사회복지사의 개입 활동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론은 그 결과의 실제 현장에서의 적합성이 규명되어야 한다. 때문에 이론과 실제의 연계는 연구 학습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론은 장인이 물건을 만드는 “도구”라고 비유할 수 있는데 이러한 많은 도구들을 실제 현장에서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숙련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허버트(Herbert)나 쉘라이어마허(Schleiermacher)에 의하면 이론과 실제는 변증법적인 관계에 있는데, 양자는 일치하기도 하며 상반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론에서 얻은 결과를 현장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자질이 요청되는데 이는 많은 실제의 경험을 전제하고 있다.

하버마스(Habermas)는 학문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론적 근거를 “경험의 분석”, “해석” 그리고 “비판”으로 보았다. 이에 앞서 딜타이(Dilthey)는 “체험”, “해석” 그리고 “표현”을 강조했었다. 여기서 “표현”한다는 것의 의미는 “비판”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표현한다는 것은 학문의 세계에서 단순히 묘사한다는 말보다는 비판적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말하고 싶다.

미처리쉬(Mitscherisch)는 자아의 외부 환경에 대한 적응 양상을 두 가지로 보았는데 하나는 수동적인 적응이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적응이다. 전자는 단지 외부의 반응을 의식하여 행동하는 것이고 후자는 그와 다른 자발적인 동기에 의한 비판적인 참여라고 말할 수 있다.<sup>2)</sup> 비판이란 말은 여기서 칸트(Kant)가 의미한 것처럼 “분별”하여 하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다.

#### IV. 실습 교육 방법으로서의 프로젝트 스터디

프로젝트 스터디라 함은 각 과목이 연관성 없이 강의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교수와 학생들이 팀웍을 이루어 학습하는 수업을 말하는데 강의와 연구, 이론과 현장의 연계 및 이와 연관된 실천 방법론을 포함시킬 수 있다.

때문에 실습 교육에 있어서 학생, 대학 그리고 기관이 “제가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조 체계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회와 직장에서는 다양한 전문인들이 팀웍을 이루어 일하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여러 학부의 학생들이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경쟁

1) Simmel, Monika, "Alice Salomon". In Sachssee, Christoph & Tennstedt, Florian, eds., Jahrbuch der Sozialarbeit 4, Hamburg: Rowohlt 1981, p. 371.

2) Mitscherlich, Alexander, Auf dem Weg zur vaterlosen Gesellschaft. Ideen zur Sozialpsychologie, München, 1973.

이 아닌 상호 협동 체제 속에서 학습한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학습 방법과 관련하여 우리 대학의 실습 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제도 개선의 대안으로서 실습 교육의 프로젝트 스터디화를 제시하려 한다.

## V. 프로젝트 스터디적인 관점에서 본 한일신학대학의 사회복지 실습

### 1. 2인의 실습 교수를 통한 공동 지도

한일신학대학교에서는 2명의 교수가 실습을 지도하고 있으며 행정적인 지원은 조교실에서 하고 있다. 2명의 교수가 담당하는 것은 장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실습을 보다 지속적으로 지도할 수 있고 기관 방문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여 기관 관계자와 보다 더 효율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질병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결강을 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지 못할 때 일정을 미루지 않고 계획대로 방문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단점도 있다. 실습생이 두 사람의 교수와 협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서 상호간의 의견 차이 등이 있어 학생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

지금까지의 실습 경험에 의하면 실습 지도 교수 외에도 가능한 한 많은 교수들이 전공별로 실습 지도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자기 전공 및 관심 분야와 관계 있는 실습지에서 실습하는 학생을 지도한다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공 영역의 교수들이 지도하게 될 때에 기관과의 깊은 유대 관계를 통하여 보다 적절한 실습 및 진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기관에도 자문하는 등 도움이 되며 교수도 자기의 관심 분야와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여성복지를 담당하는 교수가 여성 단체, 여성의 전화, 모자보호시설 등에서 실습을 전담하여 지도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지도와 차후의 취업 알선 그리고 교수 자신의 연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며 기관에서도 전문가를 통하여 기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자문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분야에 관심이 없는 실습 지도 교수가 방문할 경우 기관장이 바쁜 시간을 내어 교수에게 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오리엔테이션하는 등 비효율적이라 생각한다.

### 2. 오리엔테이션

#### 1) 사전준비

“실습에 대한 사전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실습 전 오리엔테이션이 있긴 하지만 형식적이어서 시간에 쫓겨 실습을 나간다”(설문 응답 3-59).

“실습 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먼저 그에 대한 교육과 설명을 자세히 한 뒤에 선정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리고 또한 시험 기간 중이 아닌 그 전에 선정할 수 있도록 배려하

여 그 기관에 대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한다”(설문 응답 3-15).

“사전 교육을 학교에서 실습 시작 한 학기 전에 시작하여야 한다”(설문 응답 3-13).

“학교와 학생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실습 기관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설문 응답 3-35).

보다 나은 실습이 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실습 계획서, 연구 주제 선정, 사전 준비 등에 대한 과제를 주는데 시간적으로 촉박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하여 잘 준비 못한 체 실습에 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일부 학생들은 커다란 어려움이 없이 실습을 준비하고 또한 실습 전반에 걸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그렇지 않는 학생들은 왜 실습을 나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무엇을 얻고자 하는 지에 대한 생각이 없이 피동적으로 실습에 임하고 있다.

사전 준비로 중요한 것은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인데 이 연구 계획서는 실습 현장에서 무엇을 주제로 선택하고 어떻게 접근하여야 하는 가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 계획서의 작성은 프로젝트 스테디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것인데 많은 학생들이 훈련을 받지 않아서 이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 2) 연구 주제의 선정

“연구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실습 기관의 사전 조사를 하여 실습 기관의 주요 사업 내용과 체계를 파악하고 갔었기에 평소 사회복지 관련 실무에 궁금했던 점이나 업무에 임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설문 응답 3-3).

“실습지에서 연구 주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한번 더 관찰하고 연구하게 되어서 2학기 실습이 더 도움이 되었다”(설문 응답 4-4).

“연구 주제를 바꿔야 했기에 당황스럽기도 했으나 연구 주제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알고 싶었던 주민들과 복지관의 연대, 복지관의 사업, 우리 나라 복지 현실들을 알게 되니 실습에 대한 뿌듯함이 있었다”(설문 응답 3-12).

연구 주제의 선정은 이론과 실제의 연결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라 생각된다.

실습을 하면서 일에 대한 “방향성”을 찾을 수 있었으며 알고자 하는 내용을 조사하려고 보다 많은 질문을 하는 등 연구 주제를 정하여 실습에 임하니 실습에 대한 열의가 더 깊어지는 것 같다고도 피력하였다.

## 3. 실습지 배정

“원했던 기관에 인원이 초과되어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임의로 정해져서 나갔기 때문에 실습에 대한 준비가 미약했었다”(설문 응답 4-1).

“실습을 받는 기관에서도 실습생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한다. 준비도 없이 실습생을 받아 우왕좌왕하는 것이 우습다”(설문 응답 3-1).

실습 기관에는 사회복지사가 없는 경우도 있었으며 따라서 전문 프로그램도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실습이 계획된 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실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학교에서 보다 신중히 실습 기관을 선정했으면 한다고 요청하였다. “실습지 선정이 본인이 원하는 곳이 아니고 선착순으로 정해지고, 생각을 하고서 하는 게 아니라 짜 맞추기 형식”(설문 응답 4-4)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학생들의 욕구와 일치되는 실습지 선정이 연구 중심의 실습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적절한 실습지가 없을 경우에 실습지의 선정의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한일신학대학교의 실습지 배정은 전북지역의 사회복지 대학들과 사회복지 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과 기관과의 상호 협조 체제를 유지하는 등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운영의 효율화를 이루고 있으나 실습지를 일괄 배정함으로써 학생들이 피동적이 되기 쉽다. 학생들이 관심 분야를 사전에 탐색하고 스스로 지원하여 기관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한다. 이는 졸업후 학생들이 스스로 직장을 찾는 등 자기의 진로를 개척하는 데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실습 배정에서부터 스스로 관심 있는 기관을 선택하여 본인이 원하는 기관에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할 것 같다. 프로젝트 스터디란 학생들이 연구 및 실습의 주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행과 같은 방식의 실습지 배정은 “파잉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일괄 배정은 실습 교육적인 차원에서 보다 기관의 행정적인 편의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습이 피동적인 실습이 되지 않고 능동적인 실습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연구 주제를 정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실습생으로서만이 아닌 연구자로서 접근을 가능케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습 현장에 대한 사전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자기의 경험이 단지 본인만의 특수한 경험이 아니고 보편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론에 근거하여 비판하고 해석되도록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실습 지도 교수와 현장 수퍼바이저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 져야 하는데 이러한 상호 이해와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실습이 이루어 질 것이다.

#### 4. 실습 기간

“시간이 짧아 실습이라기 보다 슬쩍 보고 오는 식이라는 느낌이 들었다”(설문 응답 4-5).

“2주간의 실습 기간은 그곳의 사회복지사들의 업무와 어려움을 파악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인 것 같다”(설문 응답 3-17).

“실습이 포괄적으로 수박겉핥기식으로 이루어졌다. 몇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부분을

깊게 들어가는 것이 나올 거란 생각이 든다. 차라리 한 학기에 4주정도 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설문 응답 3-47).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정해 놓은 기간 - 왜 꼭 3학년 때만 해야 하는가?”(설문 응답 3-2)

우리 대학에서는 현장의 경험이 다른 학교에 비하여 보다 강조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 교육은 2회에 걸쳐 실시되고 있으며 그 기간은 실습 I, II의 총 4주로 되어 있다. 4년동안 수강하는 이론 중심의 강의에 비하여 시간적으로 너무 적게 설정되어 있다. 수영을 물 속에서 배우는 것 보다 물 밖에서 이론으로 익히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다행이 많은 학생들이 자원 봉사의 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현장 교육의 부족한 부분이 다소 보완되어 진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학교 차원에서의 보다 효과적인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 대학만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향이라 볼 수가 있을 것이다.<sup>3)</sup>

이와 같이 실습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그 기간이 짧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이 선정한 연구 주제를 탐색하기에 충분한 실습 기간이 주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실습 기간을 획일적으로 고정시킬 것이 아니라 연구 주제별로 지도 교수와 상의 하에 실습 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실습 방법은 연구 주제에 따라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실습 방법으로는 매주 최소한 1일 하는 방법(concurrent placement system)이나 방학중 일정한 기간을 하는 방식(block placement system)<sup>4)</sup>이 있는데 연구 주제에 맞게 실습 방법을 택하지 않고 학생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주로 방학중의 실습을 택하고 있다.

공식적인 실습이 끝난 후에도 기관과 적절한 유대 관계를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습 기간 중에 미흡한 연구 과제를 이를 통해 보다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클라이언트와 관계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원 봉사 활동을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5. 기관에서 실습 지도

“실습 기관에서 이론보다 말 그대로 실습 위주의 활동을 가르쳐 주었으면 한다”(설문 응답 3-18).

“현장 교육으로서 실습이기를 바랬는데 학교에서도 충분히 공부한 내용을 반복하고

3) 남세진, 조홍식, “한국사회사업(복지) 실습 교육 지침 및 평가 모형 개발”, 한국사회사업(복지)대학협의회 연찬회 자료집, 한국사회사업(복지)대학협의회, 1993, p.1.

4) 노상학에 의하면 한달 또는 한학기동안 연속적으로 집중실습하는 제도이다. 노상학, “사회사업실습교육의 과제”, 한국사회복지, 강남대 부설 한국사회복지연구소 1994, p.38)



보고서를 제출하는 식의 실습일정이 별로 도움이 못되었다”(설문 응답 3-9).

“일정에 맞게 하려고 하였지만 실습을 받는 우리들은 무료하게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좋지 않았다. ... 일과 중에는 선생님들의 일이 많아 그곳에 치중하셔서 인지 실습생인 우리에게는 소월하셨다”(설문 응답 3-15).

실습의 내용을 보면 “청소만 했다”, “자원 봉사 활동을 했다”는 등 실습의 내용이 학생들의 욕구와 상반되어 이루어졌다고 스스로의 실습을 평가하기도 하였다. 깊이 들어가지 않고 “수박겉핥기식”이라고도 피력하였다. 사전에 연구 주제를 준비한 학생들이 실습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기 위해서는 수퍼바이저와의 개별적인 접촉의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하며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며 실습전 학생들이 알고 있는 일정대로 실습이 진행되어야 한다.

실습생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클라스룸식의 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칫하면 실습이 실습이 아니라 또 다른 학교 수업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퍼바이저와의 대면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실습 지도상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견습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입양의 비밀문서도 실습생들이 스스로 서류함을 열고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정방문할때에도 가능하면 실습생을 동반시킨다. 입양 상담에도 3번 정도 참석하였다. 가능한 한 현장 위주의 실습 기회를 제공하려 한다. 후배를 양성한다는 자세로 실습을 지도한다. 실습 기간이 2주인데 너무 짧다”. 이상은 실습지를 방문한 본 연구자들에게 한 기관장이 설명한 실습의 내용이다. 이 기관은 도제식에 가까운 실습을 시키고 있어서 학생들이 많은 것을 배웠다고 평가하였다. 남세진, 조홍식은 견습제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직접 보고 배우는 견습제(internship)”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다. 실제 일을 해보기도 하고 일을 혼자서 배우기도 해서 실패와 성공이 금방 밝혀져서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다. 물론 단점도 많이 있다. 따라서 치밀하게 준비되지 않는 실습은 이러한 단점들 때문에 하나하나 한 것이 되고 만다. 전문 분야에 있어서의 실습은 견습 제도로 이루어지는데, 의학이나 법률처럼 사회사업도 하나의 전문 분야로서 넓고 다양하다.”<sup>5)</sup>

## 6. 실습에 대한 평가

“실습에 있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설문 응답 3-17).

다행스러운 것은 매년 사회복지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실습평가회라는 이름으로 학부 전체 교수들과 학생들의 참여 하에 현장에서 얻은 실습의 결과를 발표하고 토의하는 계

5) 남세진, 조홍식, “한국사회사업(복지) 실습 교육 지침 및 평가 모형 개발”, 한국사회사업(복지)대학협의회 연찬회 자료집, 한국사회사업(복지)대학협의회, 1993, p.2.

기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각 학생들이 선정한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소그룹을 형성하고 여기서 그룹별 소주제가 정해지고 소그룹들이 선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하여 평가회의 대주제를 확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각 개인의 연구 주제를 보다 더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습 현장에 대한 이해와 비판적인 분석과 및 전망 제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그룹에서 예를 들면 “시설과 자원 봉사”라는 소주제를 택하였을 경우 이 그룹에는 노인 복지시설에서 근무한 사람과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실습한 사람이 한 조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중심이 되는 것이 자원 봉사라는 연구 주제이며 이 주제와 연관되어서 현장에서의 체험을 나누게 되는 것이다. 이 조에서의 토론의 과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어떤 해결책들이 있는가, 구체적인 제안은 등에 관한 것이며 이를 통해 소주제를 중심한 연구 수업 등 '자기의 특수한 실습에서의 경험을 보편적인 이론에 연결하여 접근하고 평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토론 과정과 평가에서 실습 지도교수외에 학부의 전 교수들이 전공 영역과 관련된 소그룹을 지도하고 평가한다. 실습평가회가 끝나는 저녁에는 실습평가회에서 발표한 4학년 학생 전원과 교수들이 축제와 같은 분위속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눈다.

## 7. 한일신학대학교에서의 실습교육의 과제

앞에서 지적한 프로젝트 중심의 실습에 보다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교에서의 실습은 다음과 같은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1)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조기에 실시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해야 한다.
- 2) 학생들이 선정한 연구 주제의 실제 현장에서의 연구 가능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 3) 실습 기관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여 실습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실습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려는 프로젝트 스터디의 전제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스터디를 본 연구자 중의 한 사람이 수학한 독일의 부레멘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학생들이 학부를 초월하여 함께 공부하고 있다. 부레멘 대학교의 프로젝트 스터디를 중심으로 “부레멘 모델”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려한다. 이는 우리 나라의 대학 개혁의 논의와 연관하여 의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 VI. 부레멘 대학과 프로젝트 스터디

### 1. 대학 설립 배경

부레멘대학교는 1971년에 신입생을 모집한 비교적 역사가 짧은 대학인데 설립 당시 부레멘의 집권당인 사민당 의원을 비롯하여 기민당 및 자민당 의원들은 지방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교육 방향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

- 1) 모든 정당 및 그룹들은 대학 설립을 위하여 최대 가능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며,
- 2) 대학이 연구와 수업에 있어서 사회가 요청하는 과제를 합리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필요한 내용적인 요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 3) 연구와 수업에 있어서 사회 비판적인 접근을 가능케 하며, 수업과 시험제도의 개혁을 지원하고,
- 4) 대학의 삶을 지역사회에 건이할 수 있도록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협동 체제를 지원한다.

부레멘대학교의 프로젝트 스터디는 1960년대의 학생운동과도 무관하지 않는데 학생들은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고, 사회 소외 계층의 사람들과 연대하였다. 시민 운동과 지역사회 개발 운동과 같은 맥락에서 학생들은 그들 스스로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소외 계층 그룹을 지원하였다. 중요한 것은 이들 소외 계층의 사람들이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라는 관점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대학에도 영향을 미치게 하였는데 이제 학생들은 자신이 수업의 대상이 아니라 주역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권위적이고 통제적인 사회의 시스템에 대항하였으며 성적을 통한 규제, 학습 장애, 교수와 학생간의 그리고 학생 상호간의 의사 소통의 어려움에 문제 제기를 하게 되었다. 부레멘 프로젝트 스터디는 이러한 사회적인 움직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부레멘대학교 요람에는 프로젝트 스터디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부레멘대학교의 개혁 구상의 핵심에는 수업의 개혁에 있는데 대학교수법과 학습 내용의 새로운 정립이 바로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레멘대학교는 전통적인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 또는 세미나 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소집단 그룹 활동을 주된 학습 형태로 규정하였다.

지금까지 구상된 계획에 의하면 시간적으로 제한된 약 3학기가 소요되는 한 프로젝트와 연관된 소그룹 활동에는 많은 학생들과 교수와 조교들이 참여한다. 그밖에 필요한 방법론과 전문 분야의 조직화 능력을 얻도록 일정한 프로그램화된 학과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이 수업의 목표는 프로젝트의 과제에서 채택된다. 장기간의 연구 과제는 프로젝트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선행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주제와 거기서 연유된 프로젝트의 학문적인 실천 조직은 사회의 본질적인 과제여야 한다.
- 2) 프로젝트는 미래의 전문적인 실천의 조건과 요청에 기인되어야 하며 수업은 학문적으로 조정된 직업 현장의 실험적인 실천을 포함하고 있다.
- 3) 프로젝트는 서로 다른 방법론적인 접근과 과제를 중심 전문적인 통합을 추구하며 문

제 해결에 있어서 가능한 한 전공 학과를 초월한 협동을 가능케 한다.<sup>6)</sup>

이러한 “부레멘대학교의 모델”은 미래의 전문 분야에서 활동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을 학교 생활을 통하여 가능케 하고 있다.

## 2. 수업 방법

한 프로젝트에는 대개 프로젝트 회의와 여기에 연결된 프로젝트 수행 과업과 연관된 세미나(Arbeitsvorhaben)가 있는데 프로젝트 회의에는 교수와 조교 (Tutor) 학생들이 함께 참여한다. 다른 강좌들은 담당 교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교수의 연구 수업에 학생들이 참여토록 하여 여기서 학생들이 연구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 3. 실 습

부레멘대학교에서는 대체로 실습을 중요시하는데 학생들은 방학중에 실습을 하거나 학기 중에 실습을 하게 된다. 학생들은 여러 학기의 본인이 선택한 세미나 수업을 받고 실습지를 택하는데 실습도 전공 세미나 교수의 자문을 받는다. 실습 보고서를 지도 교수에게 보내고 수퍼비전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 발표할 수 있어 이론과 실습이 연계된 실습을 하게 된다. 나중에 이러한 현장의 경험을 주제로 연구 논문을 구체화할 수 있다. 실습을 하는데 있어서 강조되는 것은 배우는 학생으로서가 아니라 현장에서의 “연구자”로서의 자세이다. 현장의 문제가 나열되거나 묘사되는 것에 족하지 않고 연구자로서 문제 의식을 갖고 방법 및 해결책을 찾으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요청되는 것이다.

## Ⅶ. 프로젝트 실습 교육을 위한 제언

이상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프로젝트 스터디화한 실습 교육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갖추어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실습을 전공별로 여러 교수가 지도하고, 실습 기관을 일괄 배정식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찾아서 그가 계획한 연구 주제와 연관된 4주 이상의 개별 또는 도제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물론 우리 실정에는 어려움이 있다. 교수 인원이 부족하며, 많은 대학이 학과제를 실시하여 각각의 교수가 다양한 전공 세미나를 개설토록 허용되지 않으며 또한 실습 기관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학생, 학교, 기관의 “3박자”가 맞아야 하는 것이 프로젝트 실습의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여러 여건상 어려움이 따른다.

6) Universität Bremen, Studienführer Ausgabe 1976/77, pp.12-13.

프로젝트 중심의 실습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의 교육과 기관의 프로그램이 실습 지도와 평가에 있어서 상호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실습 수퍼바이저에게 사전에 대학에서의 지도 상황을 소개하고 실습 후에도 실습평가회에 초청하고 실습 수퍼바이저와 대학교수와의 긴밀한 유대와 협력을 위해 교류하는 등 이를 위해 상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이 피동적인 실습생이 아닌 연구자로서 실습 현장에 접근하도록 동기화하여 실습 현장에서 경험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이론으로 체계화하고 전망 제시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학습하는 방법과 팀웍을 배울 수 있도록 대학과 실습 기관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WTO와 더불어 대학이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하게 되는 바로 이때 우리는 학생들의 경쟁을 유도하기보다는 상호 협동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간 소외를 야기시키는 대학 문화와 이로 인한 의사 소통 영역의 소멸에 프로젝트 스터디가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